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20回(臨時會)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 4月 22日(月) 11時25分

議事日程(第2次 本會議)

1. 第120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3. 區政質問의 件
4.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附議된案件

1. 第120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 1面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 2面
3. 區政質問의 件 ………… 2面
4.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 15面

(11時25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朴鍾仁 事務局長!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朴鍾仁 事務局長 朴鍾仁입니다. 제1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吳弼根議員 外 7분의 議員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0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8건입니다. 2002년 4월 11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特別市鐘路區災難管理基金運用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地名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制定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環境基本條例中改正條例(案)이 접수되었고, 2002년 4월 12일 2002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이 접수되어 2002년 4월 16일 시민행정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 19일 安載弘議員 外 5분의 議員으로부터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計劃條例(案) 改正建議要求(案)이 접수되어 당일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朴鍾仁 事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

1. 第120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11時28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제1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議事日程

(運營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11時27分)

○**議長 金以煥** 議事日程 第2項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第120回 鍾路區議會 臨時會 會議錄 署名議員은 순서에 따라 劉燦鍾議員과 李炯述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區政質問의 件

○**議長 金以煥** 議事日程 第3項 區政質問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시회 구정질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2,3항에 의하여 1시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이 많을 경우는 의원별 질문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安載弘議員 外 9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신청함에 따라 각 의원별로 5분 이내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마지막날인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洪起瑞議員께서 먼저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명륜3가동 출신 洪起瑞입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을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선출하여 주신 명륜3가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金以煥 議長, 金正大 副議長,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곁에서 항상 심혈을 기울여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 건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활용방안 진척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종로구 명륜1가 산1번지 소재 구 혜화초등학교가 혜화동 소재 구 혜화여자고등학교로 2002년 3월 2일 이전 개교하였습니다. 구 혜화초등학교 부지활용 방안으로 종로구청에서 종로구민의 교육장 및 구민운동장으로 활용하고자 2002년 3월 21일 종로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결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문화진흥과에서는 서울시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무과장이 구 혜화초등학교를 삼성재단이 매입하여 성균관대학교의 학생기숙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에게 의식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서무과장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못했지만 이는 대한민국 제일의 재벌이 현재의 기숙사 양현관, 명륜3가동 주택가 소재와는 별도로 또 다른 거대한 규모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전교생 수용목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대학생을 상대로 하숙을 치고 방 한두 개씩 자취학생을 상대로 월세를 받아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명륜동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정의 및 통념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동년 3월 28일 명륜3가동과 혜화동 주민 800여 명이 연계하여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위원회, 중부교육청, 종로구청 등에 진정하여 서울시중부교육장으로부터 회신내용은 종로구청 문화진흥과에서만 구립운동장 건립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학교부지 매각처분의 의지에 따라 매각하겠다는 회신과 성균관대학교는 아무런 협의가 없다는 회신을 접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데도 종로구청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 본 의원도 金以煥 議長, 吳弼根議員과 중부교육청을 방문하여 협의한 바 창신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여 창신동 아파트 앞에 있는 서울시유지와 초등학교를 신축,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종로구청에

서는 좀더 의지를 가지고 창신동 소재 시유지와 혜화초등학교 부지와 교환조건을 내세우면 사업이 좀더 쉬워지리라 봅니다.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종로구 사업순위 제일로 규정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창신초등학교 과밀학급을 해결하고 종로구청에서는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립운동장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구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결과를 조목조목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洪起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福同議員!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안녕하십니까? 종로5,6가동 출신 金福同議員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세계의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치르는 역사적인 이때에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욱 합심하여 구정의 에너지를 총집결시키는 한편 구민의 열기가 뜨겁게 달궈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더불어서 세계 속의 종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무리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8만 종로구민과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그리고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새로이 부임한 李老根 區廳長權限代行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종로5·6가동 주민들에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신 선거구민들에게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효자동, 종로5·6가동의 현안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하수도 문제점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여러 번 질문을 하였는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치가 안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지난 여름 장마에 본 의원 지역 종로1번지에서 큰 난리가 나서 수해를 입은 점포가 300군데나 됩니다. 구민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정신적인 불안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두 달이 지나면 다시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이와 같이 안일한 자세로 있다면 재삼 물난리로 인한 피해는 자명해 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의원이 하수도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답변은 곧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처럼 큰 피해가 없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제안드리며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어떤 복안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습니다. 본 의원 지역 효제동에 지금 도시가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 현장을 돌아본 결과 가스관 옆에 있는 하수관이 꽉 막혀 있어 오·폐수가 하수관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노후한 하수관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지하수로 스며들어 건물들의 지하로 흘러들고 있는 실정이오니 효제동, 종로5·6가동, 충신동 하수관의 교체가, 금년 장마 전에 시급한 교체와 아스콘덧씌우기 공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장마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오니 조속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재삼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李老根 區廳長權限代行께서 구정을 위하여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종로는 타지역보다 복지시설이 뒤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에 으뜸가는 종로를 만들고 싶은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에 현재 사용중인 동청사를 종로 동부지역 맞벌이 부부들을 위하여 육아 및 탁아 미취학 아동의 집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의 지역은 영세한 가구들이 많습니다. 이들 맞벌이 부부들은 아기들을 맡길 곳이 없어 출산 후에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학교생활 후 갈 곳이 없어 많은 비용을 들여 학원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니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하여 현재 사용중인 종로5·6가동 청사를 개조하여 1층은 하교 후 취학아동의 공부방으로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장소를 만들고 2층은 유아나 영아들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종로보건소가 서부에 있고 지소는 동부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중부에 보건소가 있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대 동대문병원 윤견일 원장과 협의를 하였는데 이대 동대문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주겠다는 구두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종로5·6가동 청사에 보건소를 설치할 의향을 질문하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히 파악하시어 중부 보건분소를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에서 사용하느니 또한 노인정에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하느니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본 의원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발표하오니 하루의 생활이 즐거운 아름다운 종로구민으로 자긍심을 갖는 종로가 되도록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권유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議長 金以煥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炯述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炯述議員 가회동 출신 李炯述議員입니다. 조금 전에 李老根 區廳長權限代行께서 종로에 대해 8년 동안 종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에 계셨을 때도 종로를 가장 많이 걱정해주시는 공무원 중의 한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드릴 것은 어떤 구청장권한대행보다 종로가 뭐든지 잘 풀리리라 믿고 몇 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로는 6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전통문화 역사의 산실입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유적지가 이 종로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종로 전체를 역사박물관이라고 해도 어느 누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종로를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 종로구청인 집행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북촌마을은 외국관광객이 수없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지역입니다. 이 북촌과 이웃한 인사동을 잘 연계해서 잘 다듬고 가꾸어서 외국사람들에게 국내에서 최고가 되는 국제적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종로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성의를 가지면 될 수 있는데 노상 말로만 한다고 그러고 다음으로 가면 그만이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는 항상 대답은 그럴 듯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앞에 있는 기무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역사문화의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한다면 과천에 있는 국립미술관 이곳에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무사를 옮긴다든지 왕궁박물관 이런 것을 유치해서 이 자리에 관광명소를 만든다면 종로의 자산도 되고 종로 자랑도 될 수 있는데 왜 소극적으로 진행을 안 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동안 이 기무사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왕궁박물관 대한민국에 으뜸가는 역사박물관을 유치하도록 얘기를 하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 현 대통령, 서울시장, 국방부장관에게 많은 주민들과 연서를 해 가지고 진정을 해서 올렸는데 회신 온 것이 곧 한다고 하면서 전혀 진행이 없음은 집행부인 종로구청이 성의가 없어서 역사 가꾸기는 한다고 말로만 하고 진행은 하지 않는 종로구청의 무성의한 태도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무사 자리가 정말 좋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고 역사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새로 오신 구청장권한

대행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답변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서공원에 본 의원이 전통혼례식장을 개설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말 타고 가마 타고 전통혼례를 무료로 개설하고 거기에 KBS, MBC, SBS에 전통혼례 하는 모습을 전국에 방영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와서 전통혼례를 할 겁니다. 외국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비원, 경복궁 여기 가지 않아도 그 모습 보려고 올 것입니다. 종로구청장이 답변을 하고서도 성의가 없어서 하지 않아요. 외국관광객이 그 모습을 보면 아마 비원, 경복궁 여기 가지 않고 그 모습 보러 올 거예요. 종로구청 땅입니다. 그 앞의 일부가. 성의가 없어서 하지를 않아요. 과거 청장께서는 그걸 현대 자산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그랬다고. 권한대행께서는 원서동 부지 일부가 종로구 소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비원에 있는 같은 좋은 건물을 일부 지어 놔둬야 혼례를 치르려고 하면 옷도 갈아입고 폐백도 드리려면 거기에 혼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대로 하라면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고건 시장 보고 말 두 필 사달라고 그랬더니 아! 좋다. 전에 웬 양반이 나와 가지고 얘기가 뭐 하려고 거기 구의원 집에서 그러냐고 해요. 이 관광명소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새로 오신 권한대행은 종로를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종로가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광명소가 되는 이런 것을 걱정하시고 꼭 좀 원서공원이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경복궁하고 비원 사이의 담장 옆에 보면 큰 대형버스가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 양쪽 도로변에 있는 이 차를 계속 둘 겁니까? 경복궁 옆에 있는 대형버스는 그 정독도서관 지하를 파 가지고 집어넣으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청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주·정차 문제도 해결되고 창덕궁 옆에 있는 불법 주·정차도 재동초등학교 지하 주차장을 파 가지고 집어넣으면 그 흉물스러운 부분도 해결될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골목골목에 있는 주·정차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신경을 쓰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새로 부임하신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는지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외국을 수없이 많이 가봤습니다. 한 백여 군데 가봤는데 선진국 어느 곳에 가봐도 큰 고궁 옆에 종로에 있는 이런 불법 주·정차는 못 봤습니다. 언제 존경스러운 千相旭議員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요. 어쩔 수 없기는 왜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 다시 찾아오는 누구든지 종로에 와서 살고싶은 이런 종로 가꾸기를 집행부에서 꼭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님! 10분이 넘었습니다.

○李炯述議員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도 600년 북촌마을 가꾸기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세목별로 서울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이 집행부인 종로는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집행부는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정해놓았으면 그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종로가꾸기에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스럽고 고맙습니다.

○議長 金以煥 李炯述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安載弘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혹시 제 발언시간이 조금 초과되더라도 議長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동 구기동 출신의 安載弘議員입니다. 우선 오늘 종로구 평창동 417-3호 연화정사 내 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시위는 정당하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1년 3월에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2001년 1월 27일부터 새로 제정 공포 시행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종전의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바뀌며 파생될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낸 결과 현재 당시 주장하고 우려했던 그대로 같은 사안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종로구 평창동 지역이 아니 종로구 전체가 납골 동이 되느냐, 납골 구가 되느냐를 놓고 그야말로 선량한 주민들께서 납골시설 설치의 저지를 위해서 최근 수개월 동안 거의 매일 어깨띠를 매시고 구호를 외치며 반대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종로구의 종교시설 수를 보면 근 300군데의 종교시설이 있으며 그중 평창동 지역에만 놀랍게도 약 46개의 종교시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주민들이 주장하는 납골 동이 되리라는 그 주장은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납골당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평창동뿐만 아니라 종로구의 대다수의 동들이 납골 동으로 변할 것이며 따라서 많은 주민의 극렬한 반발과 민원이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로구 평창동 417-3호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 및 집회장 내의 납골당 등으로 설계변경이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허가할 것인지 여부와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경우에 납골당 등의 신고처리 문제에 대한 구청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불법 증·개축으로 인해 주민의 원성을 받아온 종로구 평창동 417-6호 건축물에 대한 그간의 민원처리 과정을 소상히 답변주시고 주민의 불신을 사고 있는 동일 지번 상의 천불당 건물의 지하실 불법건축물 여부와 공사중지 기간 중에 3개월 여 동안 공사가 진행되어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417-3호 건축물의 공사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6조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한 근본적인 목적은 도시계획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며 지정한 것입니다. 전용주거지역이며 자연경관지구인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극소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 공포하여 시행중인 「장사등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도시계획법이라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졸속 입법을 함으로써 오늘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납골당 등의 시설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옳다고 보며 따라서 잘못 시행중인 관련법령인 도시계획조례 제26조제2항 3호 가목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납골당의 설치를 전용지역에 구분 없이 자연경관지구의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종교시설이나 사찰의 경내에 아무런 규제 없이 약 150평 범위 내에서 납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시설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나 주차장이 없어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뻔히 예상되는 주차난과 소음, 분진, 쾌적한 환경권의 침해,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의 주민들께서도 근본적으로는 납골당 등의 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 화장 등의 방법을 통한 납골시설의 확충의 필요성을 부

정하시는 주민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이 주거밀집지역이나 도시계획법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설치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집단 민원이 있다면 그 사안을 집단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방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는 재시행도 1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의 불신의 벽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의 많은 공직자들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 분야마다 각과마다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정서비스의 수요자이며 소비자인 주민에게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로구청, 즉 종로 자치구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내용과 성격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 해결방안을 주민들과 더불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보면서 따라서 수년간 평창동 417-6호의 불법적인 건축행위로 주민의 원성을 받아온 연화정사에 대해 동일 건축주인 417-3호에 대한 건축허가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종로구 주민들과 함께 생각하고 서로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민들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千相旭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相旭議員 千相旭議員입니다.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1,300여 명의 종로구 공무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가 제 의정생활 11년 동안의 마지막 질문이 아닌가 해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조 초기에 한양천도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북악산을 그 당시의 시민들이나 현재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즐겨찾던 북악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가안보상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조치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문제들이 이미 다 해소되고 없는 상태에서 저희 주민들이 2001년도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북악산을 개방하라는 진정을 넣었습니다만 어쩐 일인지 관계당국에서는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우리 종로구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그 철책을 헐어버리고 서울시가 한눈에 보이는 우리 어머니의 품속 같은 그러한 북악산을 우리가 즐겨서 산행을 하고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빨리 실시한다면 한두달 이내에 북악산의 철책을 헐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철거한다는 게 아니고 절반정도만 우리가 활용한다면 꼭대기의 말바위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멀리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방관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실시해서 실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종로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서 시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자연경관지구 해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로 봐서는 1년여 동안 연구검토를 해서 제출된 그 계획(안)이 과거에는 풍치지구라서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자연경관지구로 되었는데 그것이

곧 해결될 걸로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과정을 우리 종로구에서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개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만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행정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혁이란 것은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하고 신바람이 나는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종로구뿐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신바람 나는 모두가 동참하는 개혁이 아니고 일방적인 개혁을 함으로써 저항과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3년도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초기입니다만 북유럽의 옵살라 시장의 초청을 받고, 그곳은 150년의 역사가 있는 전통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역입니다. 예산은 우리 종로구와 10배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는 우리 종로와 비슷하게 20만이고 10배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 시의 시장실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실 규모가 3평밖에 안됩니다. 저희들 가져가는 기념품을 교환하는데 사진을 촬영할 수가 없어서 문을 열고 바깥에서 할 정도로 좁은 공간에 책상 하나와 걸상 하나 그리고 기념품을 보관하는 장식장 하나, 서재 하나 해서 전체 합해서 3평 정도의 규모로 시장이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장을 겸직하는데도 불구하고 3평 정도의 사무실에서 집무를 하고 있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서 1명.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을 어떻습니까? 우리 종로구만 하더라도 그 옵살라시의 1/10에 해당되는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실은 얼마나 넓고 그 소속된 인원은 10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종로뿐이 아니지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개혁을 해야 될 첫째 과제인데도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오늘 어제가 아니고 왜정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통치할 때 그 당시의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개혁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권주의 시대는 그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현재 민선시대에 와서는 시급히 개혁해야 될 사항이 바로 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3기 민선구청장이 곧 당선될 것입니다만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 종로구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종로구청장실부터 규모를 축소하고 비서진을 없애고 1명의 수행원만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서 예산이 약 3억원이 절감됩니다.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가 3억이 절감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면 재정자립도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쓰기 위해서 국가나 관으로부터 타오는 것이 아니고 타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 개혁은 우리 종로구에서 먼저 해서 모범답안지를 우리가 작성해서 전국에 발부해줄 때 전국 239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종로구의 모범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실천한다면 국가 재정도 도움이 될 것이고 400조에 가까운 국가부채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동기를 마련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종로구가 먼저 하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우리 종로구에서 모범답안지를 작성해서 그것을 발표해서 모든 전국에서 지방자치제가 우리 종로구에 와서 변화를 하고 배워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 제대로 된 개혁을 해나가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데 우리 李老根 區廳長權限代行께서는 그러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시간이 다 됐습니다.

○千相旭議員 네번째 질문은 자립도에 관한 질문인데 이것은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다음 기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千相旭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壽漢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부암동 출신 玄壽漢입니다. 이 자

리에 나온 것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千相旭議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개혁이 어디까지 왔느냐, 또 역대 청장님께서는 "아름다운 종로, 살기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돼가지도 않고 더 주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점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나와 계시는 관계공무원 외에 전 1,300여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무엇인가, 본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동기능이 구청으로 전부 이관된 업무가 엄청납니다. 또 그 인원이 반수 이상이 구로 전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과에 가보면 그 인원 는 것만큼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각 과 각 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서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9개 동을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나머지 지금 7~8명에 10여 명 각 동에 남아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다 구청에 이관됨으로 인해서 동장 이하 각 직원들이 그 우수한 두뇌들이 전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부 못 본 척합니다. 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요지에 '불법 무허가건물 증·개축 문제' 이랬는데 이건 어떤 문제냐 하면 작년도에 타구 건축업무를 본 직원들을 통해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시한 것은 노후건물 보수해라, 그러면 주민들이 얼씨구나 하고 보수했습니다. 보수했는데 그것이 한두 평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집 하나를 담을 벽돌로 둘러쌓더라도 두세 평은 늘어난다고 건축담당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원상복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동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안됐을 때는 동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했습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문제도 주야간 4만원을 받기 위해서 공히 여러 면을 그어놨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업무를 볼 때는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질서가 잡혀있었습니다. 구에 이관되니까 신고 1년 한두 달 안나옵니다.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난번에 고용직 직원을 각 동에 한 명씩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사람이 무슨 단속권이 있고 뭐가 해야죠. 견인차 신고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담당공무원에게, 저보다 젊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단속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법권을 주든지 연구를 해봐라 했습니다. 아직 몇 개월 안 지났으니까 더 연구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동기능이 구청으로 이관됐을 때 발생한 문젭니다. 저보다 관계공무원이 더 많이 알고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거의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되고 있는가를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또한 동소규모사업 이것은 하려면 토목담당, 건축담당이 전부 각 동에 환원 배치돼야 합니다마는 저희 세검정지역은 일제시대에 도로를 만들었고 군사작전도로를, 지금 칠팔십년 전에 혹은 오륙십년 전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6·25사변 이후에 과수원 밭이 전부다 주택정리가 되어가지고 도로를 내놓고 지금까지 아스콘포장,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것은 못한다 해도 오늘도 제가 오는 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20m 파괴된 거 학생이 밤에 야간 하교길에 넘어져서 부려졌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 엉망입니다. 그런데 할 길이 없어. 구청에다 얘기해야 나오지 않습니다. 동직원도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민들한테 재료를 너희들이 구입해서 여기다 갖다놔라, 공공근로요원 시켜서라도 만들겠다, 해 주겠다, 아마 오늘 정도 재료를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사놓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살기좋은 종로 살기좋은 행정자치제도" 왜 행자부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 종로구 실정에 맞게끔 하면 되지 정부에서 시킨다고 그대로 따라 합니까?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는 중에 여러 통화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도 재개발지구

○議長 金以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玄壽漢議員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지방자치제를 다시 한 번 확립해 가지고 독특하게 행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줄로 사료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연구 검토하실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玄壽漢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실 분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憲九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憲九議員 효자동 출신 李憲九議員입니다. 본 의원이 4년 동안 끈질기게 구정질문한 것이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꼭 시행하는 의미에서 거론하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5월 28일이면 정든 이 본회의장을 떠나서 광역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마지막 구정질문으로 알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이행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청운동 70번지, 75번지 도로와 신교동 2-48, 2-61 사이에 소방도로를 개설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로는 신교동 2번지 일대 소방도로와 주차난 해소 그리고 인왕수목원을 연결하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도 들지 않는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좀 해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습니다. 또한 옥인동 47-325호 박대근 가를 매입해서 길을 확장한다면 옥인아파트에서 청운동까지의 길이 완벽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인아파트와 인왕산도로를 연결해달라는 옥인동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옥인아파트가 협소해서 주차공간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옥인동 1동 사이 하천부지 일부를 절반 복개해서 회차할 수 있도록 하고 인왕스카이웨이와 옥인동 길을 연결해달라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 셋째, 옥인연립주택 뒤에 옥인아파트 7동 옆에 야트막한 구릉지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 지역 주민들이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곳을 공영주차장으로 개설하면 역시 이곳도 보상 없이 바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개설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공원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형질변경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면 옥인아파트 주민과 연립주택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지금 인왕산 스카이웨이 길을 따라 가보면 옛날에 휀스 안으로 일본산 향나무를 많이 식재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전부 베어내고 일본산 벚나무나 꽃나무를 심어서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 사이에 자연적으로 지금 산책길이 생겼는데 폭이 1m 내지 2m 됩니다. 아주 산책길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올여름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는 틀림없이 사태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태가 나지 않도록 산책길을 다듬어 줍시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정과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문제와 맞벌이부부들의 어린이 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인왕산정 경로당은 고지대에 위치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로당을 옥인아파트 주민과 옥인연립주택 그리고 누상동 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할애하시고 그 대신 저지대, 즉 통인시장 근처의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합치는 복합건물을 마련해서 갈 곳 없는 그래서 시장 주위를 배회하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쉼터를 만들어주고 또한 어린이 탁아소를 만들어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 걱정을 덜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곡히 질문을 드리오니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憲九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泰淳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泰淳議員 존경하는 20만 종로구민들!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우리 종로를 대표하는 구민

과 또 관계언론사 기자 여러분! 특히 종로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金以煥 議長님과 그리고 24시간 종로구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새로 오신 李老根 副區廳長님과 집행부 관계기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 구정질문에 정례회에 준하는 20분이 아니고 5분임을 참작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만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료의원님이신 그 분과 마찬가지로 종로구청장에 출마하기 때문에 5월 28일까지만 이 단상에 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항상 선거 때만 되면 기적이라고 이끌어주는 세종로와 청운동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뜻에 부합해서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종로구는 전직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본인들의 개인 사유로 인해서 막중한 임무를 임기도 못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불과 며칠 안된 사이에 새로 오신 李老根 副區廳長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대처하고 계신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에 우리는 큰 행사가 1년에 네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6·13선거와 더불어 월드컵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말하면 스포츠인의 대축제가 아니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침략국가의 침략을 받은 나라가 동시에 치르는 이러한 스포츠행사입니다. 특히 우리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성대히 잘 치러낸 경력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국위를 신장하고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단합된 결의를 보이고 이 행사를 치러야 하는 막중한 시점에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중차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놓고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인원과 주어진 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우리 종로구민들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종로구청을 지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과 제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 청사는 제가 누누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객이라든가 특히 종로주민들이 찾아오면 웃으면서 와서 웃으면서 떠나야 되는데 떠날 때마다 앞에는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를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종로에 오면 비지땀을 흘리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종로구청은 이러는가 하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아니면 대수선 때문에 가면 지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하소연을 해도 이것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늘상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전과자가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사범처럼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가슴만 애태우고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청은 여기를 찾는 종로구민과 민원인들이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활용할 때 그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점도 중요하지만 구민이 잘못하면 그것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거나 변칙금을 부과합니다. 종로구청은 스스로 솔선수범을 해서 주민들한테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종로구청을 구민 주차 확보라든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 확보해줘야 되는데도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본다면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화사한 봄내음과 더불어 4월은 만인에게 희망찬 새소식을 전해줍니다. 제가 위치하고 있는 청운동에서는 677세대의 청운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떠나고 130세대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 분들은 지금도 이 꽃내음과 같은 화사한 봄소식처럼 본인들이 영원히 그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정책에는 주택정책도 이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경비를 적게 들이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

민이 요구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을 관에서는 법과 제도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이나 앞에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주민이 필요한,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주민에게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면 대변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서있는 본 의원이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그 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鄭泰淳 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宣相善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숭인2동 출신 宣相善議員입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金正大 副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과 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李老根 廳長代行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양춘가절(陽春佳節)인가 했더니 29도를 오르내리는 요즘 날씨가 절기를 초월해서 초하(初夏)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새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3대 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7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19만 종로구민과 2,000여 숭인2동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지만 돌이켜보건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산적해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기 마지막까지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숭인2동 577번지, 581번지 주택가 일대 도로 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77번지 일대는 1년 내지 10년 전에 대체로 빌라로 신축을 하여 건물이 대체로 양호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로는 매우 불량합니다. 신축 당시에 시멘트로 포장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도로가 움푹 파이고 자갈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곳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도 초부터 줄곧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은 할 수 있고 또한 하수관 교체, 빗물받이는 신설할 수 있고 아스콘 포장은 할 수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李老根 區廳長權限代行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입니다. '쓰레기, 쓰레기' 하면 본 의원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의원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문을 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네 이곳 저곳 구석구석을 돌아다보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산적해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은 크다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규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만 수거를 해 가죠. 그러나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긴급 기동반을 동원해서라도 빨리 수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 요구를 하면 당시 그때만 잠깐 하고 그 후에는 전혀 치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더워서 여기저기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지구인의 축제인 60억의 인구가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이런 월드컵을 치를 수가 있겠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리수거가 된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아진 쓰레기는 물론 무단투기하는 쓰레기도 더욱이 가구나 TV나 세탁기, 냉장고 등등 이런 신고하지 않은 그러한 생활쓰레기도 즉시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李老根 廳長權限代行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이 내용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金以煥 議長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

분! 그리고 저를 이끌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보살펴주신 숭인2동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宣相善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李東奎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창신3동 젊은 일꾼으로 지난 '98년 6·4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압도적으로 선출된 李東奎議員입니다.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金以煥 議長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월 13일자로 종로구청장 권한대행으로 부임하신 李老根 副區廳長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李老根 副區廳長님은 서울시 출신으로 서울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시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종로구의 입장을 정확히 알려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문제의 해법이 찾아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창신·숭인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98.5%로 높은 것은 또한 각 국·과장님과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신3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오후 2시에 창신3동 명예행정관, 직능단체장, 지역인사 등 30여 명이 동청사 신축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답사에 참가한 모두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사 연면적이 500평이라고 해서 기대했었는데 현장을 보고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 내부공간 중심에 대형기둥이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마디로 건물을 버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찌된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신축청사가 왜 이렇게 건축되어져야 했던 것인지 구청 관계과의 관계자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건설되도록 방치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청에서는 동청사가 이렇게 지어진다고 창신3동의 주민들에게 설명회 한번 하지 않았고 한번도 현장에 나와서 지도감독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납득이 가능하도록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동청사의 내부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계약서 상에 수거인원, 수거장비, 수거차량, 미화원의 연령과 능력에 관련된 계약조건은 무엇인지 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이행 불능시의 경우 제재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3동의 경우 심창기업 주식회사에서 수거를 담당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회사는 쓰레기 수거 능력이 없습니다. 당일 배출 쓰레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에 수거를 해야 되는데 당일 수거가 안되니까 쓰레기가 적체되고 무단투기 쓰레기와 섞여서 온 동네가 불결해지는 겁니다. 창신3동은 구에서 직영했을 때 미화원이 9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화원 1명, 운전기사 1명 해서 전에 9명이 하던 일을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동에는 11명을 충원하던 게 3명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2명이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인원이 적은 것도 문제인데 미화원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창신3동의 경우 골목이 많아서 지형을 숙지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미화원의 연령층이 높고 동력수레 조작을 못하고 동력수레는 세워놓고 손수레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능력이 오르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까 규격봉투 수거도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 수거가 안되어서 계속 쌓이고 계속 쌓이는 쓰레기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동직원들이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무단폐기물과 가전제품, 장롱 같은 대형폐기물과 주민들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까지도 수거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지봉로변에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매일같이 구청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는데 재활용품만 수거해가고 재활용품이라고 해놓은 종이류와 재활용품과 쓰레기가 혼합된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매일아침 재활용품 수거차가 지나가고 나면 재활용품을 적치해놓은 장소는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수거차가 지나간 후 아침 9시 공공근로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이 어지럽게 널린 쓰레기를 보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직장으로,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창신3동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지적한 용역의 문제점을 조사하셔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한 조기에 수거능력이 충분한 용역회사로 교체해 주시든가 구 직영 체제로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노선별 가로미화원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지봉로길에 가로미화원을 배치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간 직후에 바로 가로미화원들이 수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종로나 왕산로나 대학로 등 간선은 그 많은 쓰레기를 가로미화원들이 수거토록 하면서 지봉로는 관심권 밖으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과거의 좁은 길이 아닌 4차선의 대로로 지하에는 지하철이 달리고 얼마 후면 노선버스가 달리는 간선도로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가로청소원을 배치하여서 재활용품 수거 뒤에도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망터널 앞 우회도로 설치 건에 대해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지난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를 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연구 검토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지하철 6호선에 1호선 연결을 위하여 동대문역사를 확충하고 동양 최대의 에스컬레이터를 약속하는 등으로 주민 홍보를 해놓고는 어느날 소리 소문 없이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였던 것입니다. 지봉길 확장과 관련해서는 동망터널 앞에서 청룡사 쪽으로 바로갈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해놓고는 우회도로 백지화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99년말에 설계변경을 해서 우회도로 건설을 백지화하였다고 합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당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회도로를 건설을 하든가 처음부터 안 하든가 하는 것이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도로에서 시위를 하고 시장실을 방문을 하고 하니까 우회도로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행정이 주먹구구의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과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회도로를 건설하지 않으면 터널 직전에서 좌회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창신3동의 거의 모든 차량들이 1차선 램프를 통과하여 쌍용 1단지 앞에서 유턴하여 동네로 진입함에 따라 현재보다 1단지 정문 앞의 교통량이 3배 이상 증가될 것이 분명하고 그에 따라 1차선 램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엄청난 지체와 교통사고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또한 1단지 정문 앞에서 지하철 6호선 창신역사 냉각탑을 설치하여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공해 및 재산권과 관련하여 쌍용 1단지 전 주민들이 이설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설치된 냉각탑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고 민원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종로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현황을 검토해서 서울시에 종로구의 의견을 내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 두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李東奎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

4. 關係公務員 出席要求의 件

(12時52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께서는 오늘의 구정질문에 대해 오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심사결과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20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12時54分 散會)

○出席議員 18人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權限代行	李老根
行政管理局長	董連浩
財務局長	李炳滿
生活福祉局長	河徹昇
都市管理局長	黃義振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健所長	鄭有珍